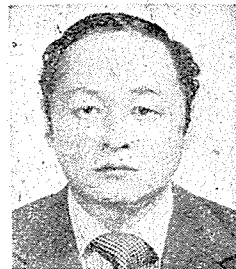


# 社會에 寄與하는 氣風 진작 運營방안등 次期總會서 舉論돼야 =새마을 齒科診療院 開院 1주년을 맞아=

大韓齒科醫師協會總務理事 金 榮 基  
새마을 齒科診療院 院長



<金 榮 基 博士>

齒協「새마을齒科診療院」은 새마을사업과 이웃돕기 운동...  
에 적극 참여하는 齒科醫師의 새마을사업으로 생활보호...  
자 및 영세민등에 치과진료를 베풀므로서 안정된 생활속에...  
협동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기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므로 사...  
회로부터 신뢰받는 齒科醫師像을 부각시키는데 있는것. 이...  
새마을 齒科診療院이 15일로 開院 1주년을 맞았다. 이에...  
그 동안의 실적을 비롯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의 방향...  
등을 알아본다. <編輯者註>.....

齒協에서 새마을齒科診療院의 개설을 추진하게 되것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등계무료진료등 대민진료사업을 펴오는 동안 이같은 사업이 시간, 인력면에서 소모가 큰 반면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가 안되는등 효율적인 진료활동이 못된점을 감안 일정장소에 무료진료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 새마을정신에 입각, 집행부와 회원 全齒科界가 自發的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예산이나 기구설치문제 환자동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常設기관을 설치했다는 것은 다른 醫療團體에서 하지못한 것을 이루었고 생활보호자 및 영세민등에 치과의료혜택을 베풀므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기풍을 진작하고 나아가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했다는데 크나큰 自負와 意義를 지니는 것이었다.

同診療院은 76년 10월 15일 관계업체의 유닐체어등을 회사받아 개원, 10월 18일부터 환자진료에 착수했으며 77년 3월 31일까지는 임원진 및 회원 관계인사등의 창조를 받아 운영되어 왔으며 지난 4월 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등이 통과 확정되어 豫算이 집행되고 있는것이다.

지난 1년간 진료실적을 보면, 7백 80명의 회원이 진료에 參戰하여 2천 4백 92명의 환자에게 발치 8백 23, 충전 9백 98, 기타치료 1천 4백 28 검사 및 상담 2백 36등 총 3천 4백 85예의 진료를 배풀었다. <별표 진료실적참조>

그동안 새마을 齒科診療院은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움 속에서도 무난히 운영되어 왔으며 시설 또한 어느 종합병원에 못지않게 확장 구비했고 홍보활동에 힘입어 제약 회사에서 진료용약품을 기증해오는등 대내외의 관심은 높아졌다 하겠다.

지난 1년간 운영결과에 의하면 운영·예산·환자동원등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운영문제에 있어 일부회원들은 진료차 나오는 회원들이 먼거리에 있는 진료원까지 나오는데는 교통비가 기원원씩들며 환자진료에 지장을 받으며 진료에 임하기보다는 고정의사를 채용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정의사를 배치하기 위해선 1년에 의사수당등 5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새마을치과진료원 진료실적

월	별	동원치과의사	환자 수	발	치	총	전	기	타	진	료	검사 및 상담	계
76.10~77.3월		396	1,113		392		424		482			160	1,458
4월		46	111		79		104		85			3	271
5월		56	216		83		95		110				288
6월		69	252		63		96		227			2	388
7월		61	390		86		168		268			48	570
8월		81	346		73		69		203			20	365
9월		71	46		47		42		53			3	145
합	계	780	2,492		823		998		1,428			236	3,485

대 총회에서 인준받은 77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은 2백만원밖에 안되며 이 또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인건비(간호원)등에 충당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이상 집행부 임의로 할수 없는 것이며 고정의사를 배치한다면 이에따른 예산확보는 전적으로 회원참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정의사 배치를 주장하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은 교통비를 고정의사 대우에 충당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회원의 가혹한 뜻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될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協會운영에 있어 豫算확보는 절대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키위 해선 이에따른 예산증액이 뒤따라야하는 것인데도 지난 총회에선 집행부가 내놓은 豫算案이 30%나 삭감되었고 급년도 회비수납현황을 보면 이미 회기의 반이나 지났는데도 회비납부는 40여%를 상회할뿐이고 76년도와 77년도의 두차례 총회 의결을 거친 10억기금 모금도 현재까지 몇몇 사람의 성금을 제외하면 거의 납부되지 않은 현실에 과연 고정의사배치에 전국회원이 얼마나 동조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고정의사를 두려면 추가경정예산을 내놓든가 별도 창조징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진료원 출범의 본래목적이 새마을정신에 의한 회원들의 자진참여라는데 그 의의가 있고 이 진료의 실적을 근거로 매정부에 건의, 지원을 얻어 앞으로 전국 市道支部에 새마을진료원을 증설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醫療保護등 醫療施惠사업을 일관성있게 운영코져 하는데 目的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총회서 協會 또는 支部案으로 다시 거론돼야할 것이다.

또 동진료원의 관리에 있어 동진료원의 기구는 모두가 신품인데 회원들이 진료시 기구사용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등을 염려하는 회원들도 있으나 이 문제는 고정技士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별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서도 지적 했듯이 모든 사업수행은 예산의 뒷바침이 필수조건인 것이다.

고정의사 배치를 비롯 시설확장 연차적인 시도의 진료원개설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다. 市道支部에 진료원 증설을 위해 協會는 이미 관계요로에 1차적으로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요청한바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이문제를 검토중인데 실행가능성이 비치고 있어 기대가 큰것이다. 이밖에 자체예산문제도 지난 1년간 운영결과 X-레이 등 부대

시설확장을 비롯 간호원 증원, 환경정비 진료약품등도 현재 예산으로는 원할을 기하기에 부족한 형편인 것이다. 환자동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진료대상은 생활보호자 영세민등으로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요구호자 및 영세민에게 이 취지를 전달케하여 환자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약 3백개등에 진료권을 보낸바 있으며 고아원·양로원등 수용시설에서 의뢰하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때에따라 한두명 또는 네 다섯명의 환자가 내원하는 날 진료를 맡은 회원 일부는 경제성에 비추어 시간과 인력의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지난 1년간 실적을 미루어보아 3천 5백명이라는 진료실적은 1년치고는 큰 기여를 한 것이라 하겠으며 전망 또한 밝다고 하겠다.

지난 1년간 7백 80명의 회원이 자진참여 봉사정신을 실천했으며 우리회원의 총화단결력을 과시했다는데 자부를 느끼며 이 길이 곧 권익신장과 인권옹호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고 보다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 차기총회에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아-트齒科技工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75의1  
(73) 3452 (72) 4237

대표 文 一

=各種齒科材料一切=

大宇齒科材料商社

崔壯祚·崔南祚

서울 特別市 中區 봉래동 1가 65의 10 (유하빨당 202호)

電話 (28) 4579